화단 및 분화용 동자꽃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Lychnis cognata* Native to Korea.

L A N D S C A P I N G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제비동자꽃의 만개시 모습

한 여름에 야생에서 피는 꽃으로 동자꽃 만큼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것도 드물다. 스님을 기다리다 얼어 죽은 동자승을 묻은 곳에서 피어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잎이나 꽃의 생김새도 화단용으로 손색이 없으나 추위에 강해 전국 어디서든 심어 즐길 수 있는 우리 자생화 중의 하나이다. 동자꽃과 비슷한 종으로 털동자꽃, 가는동자꽃, 제비동자꽃(사진) 등이 있으며, 교배종(사진)으로 강원도농업기술원 선발한 흰색 계통과 분홍색 계통도 있다.

1. 생리생태적 특성

동자꽃은 자생지에서는 겨울에 지상부는 죽지만 지하부가 남아 월동하여 이듬해 다시 생육을 재개하므로 다년초이지만 재배적으로 보면 씨앗번식이 가능하고 뿌린 그 해에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맺기 때문에 일년초로 취급할 수 있다. 이른 봄에 뿌리면 그 해 여름에, 가을에 뿌리면 이듬 해 여름에 핀다. 자생지를 기준으로 꽃은 7~8월에 주홍색으로 피며 자라

▲ 교배를 통해 나온 흰색 동자꽃(강원도농업기술원)

▲ 교배를 통해 나온 분홍색 동자꽃(강원도농업기술원)

는 곳의 환경에 따라 키가 30cm부터 크게는 100cm까지 자란다. 추위에는 무척 강하지만 건조에는 매우 약하다. 동자꽃의 개화생리를 보면 개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저온이 필요하며 저온을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장일을 경과시켜야 꽃눈이 분화 발달하고 정상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

2. 재배기술

가.번식

실생 및 삽목으로 번식한다. 종자번식은 채종 직후 바로 파종하거나 방습이 되는 저장고에 담아 두었다가 이듬해 2월 20~4월 20일경 파종한다. 23℃의 온도에 광이 있는 조건이면 95%가 발아된다. 파종 후 7일정도 지나면 싹이 나와 10일 정도면 약 50% 이상이 나온다. 본엽이 2~3매일 때 가식하든지, 플러그판에 뿌려 본엽 5~6매 때까지 생육시킨 후 화단에 심으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꽃이 핀다. 파종시기를 달리하여 어느 정도 꽃피는 시기나 꽃수를 조절할 수 있다. 파종기가 빠를수록 개화소요일수가 길어지고, 파종기가 너무 늦으면(6월 20일경) 바로 고온이 와 육묘도 어렵고 꽃수도 저조해진다.

삽목은 줄기삽이나 뿌리삽 모두 가능하다. 줄기삽목은 꽃이 피기 전 새 가지를 약 5cm 길이로 잘라 삽목하면 15~20일내에 새뿌리가 내린다. 삽목시 발근촉진제인 루톤이나 NAA를 사용하면 뿌리가 훨씬 빨리 잘 나온다. 뿌리삽목은 봄 또는 가을철에 뿌리를 캐 눈이 달리도록 나누어 심으면 곧 새 줄기가 나온다.

나.재배관리

흙은 유기물이 풍부한 점질양토가 적합하며 습한 조건에는 강한 편이지만 건조에는 무척 약하므로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물관리를 잘하고 햇볕을 충분히 받게 해준다. 화단에 심을 경우는 15×15㎝ 간격으로 심는다. 심은 다음 낙엽이나 볏짚 같은 멀칭 재료로 지표면을 덮어주어 한발이나 여름철 고온 장해를 줄여 주는 것이 좋다.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키를 낮추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한다. 햇볕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므로 한 여름에는 30% 정도 차광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분화재배

분에다 심어 기를 경우 용토는 질석 40% + 피트모스 40% + 펄라이트 20%를 혼용하여 쓴다. 분화로 기를 때는 화단에 심어져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물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분에다 키우면 꽃이 피는 것은 생육량과 관계가 있다. 즉,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우면 꽃도 빨리 피고 충실하다. 따라서 비료는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여 지속적으로 생육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적으로 분화를 재배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키를 낮추고 측지발생을 유도하여 꽃을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적심(순지르기)이나 생장조절제를 이용한다. 즉 적심은 분에 심은 지 20~30일 정도 지나 뿌리가 활착되면 바로 해준다. 묘가 어렸을 때 생장조절제(유니코나졸)를 쓰기도 한다.

▲ 자생지에서 핀 동자꽃 모습(화악산, 땅이 척박하여 전체적으로 왜소)

라.시비관리

정원이나 화단에 기를 때는 부엽퇴비 3,000kg /10a, 화학비료 N-P-K=5-5-5kg/10a를 모두 밑거름으로 살포하고 갈아서 고른다. 생육 중에는 4종 복합비료를 1,000~1,500배액으로 희석하여 월 3~5회 정도 잎에 시비해 주고, 화분에 기를 때는 구비나 유기질 비료 등을 화분위에 적당량 올려 두면 물을 줄때마다 조금씩 녹아 들어간다.

▲ 화단에서의 동자꽃 생육 및 개화 광경

마.병해충 방제

병해충 피해는 별 문제가 없으나, 여름철 고온 다습할 경우 회색곰팡이병과 줄기썩음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어야 한다. 특히 고온기에는 진딧물 및 응애의 발생율이 매우 높으므로 조기에 방제해야 하며 개화기에 담배나방, 청벌레나 총채벌레의 유충이 꽃을 뚫고 들어가거나 파먹으므로 개화기 전후에 살충제를 살포해 주어야 한다.